벼루장 三代… 자석벼루에 담은 '魂'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9〉

제26호 벼루장 신 근 식씨

글방의 다정한 벗 문방사우(文房四友)의 하나인 '벼루'는 언제나 말없이 검은 물감을 풀어낸다.

벼루는 삼국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지만 학자들은 그 이전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한자문화권의 바탕인 한자의 형성과정에서 벼루는 한자문화의 확산과 함께 오랜 기간 지식인과 문화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전통 공예품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벼루와 45년간을 보낸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6호 벼루장 신근식씨(61·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는 붉은 빛을 띤 자석(紫石)으로 벼루를 제작한다.

자석벼루는 흔히 검정색의 벼루보다 색채가 독특한 것은 물론 단단하고 입자가 고와 먹이 곱게 갈린다. 또 글씨가 매끈하게 씌어지고 원석의 수분흡수율이 극히 적어 갈아놓은 먹물을 오래 두고 쓸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특히 경도가 높아 입체적인 조각품을 제작하는데 적격이다.

신씨는 "다른 원석은 먹이 갈릴 때 돌도 함께 갈려 돌가루 찌꺼기가 남거나 혹은 돌이 물기를 먹으면 약해져서 돌이 터져 갈라지기 쉽다"며 "자석으로 만든 벼루는 입체조각품의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수백년 동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7세 시작…조부·선친 가업 이어

신씨는 좋은 원석을 구하기 위해 영·정조때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수'나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파주의 '화초석', 정선의 '목문석', '암록석', 보령의 '남포석' 등 전국의 유명 원석에 대한 기록을 찾아 20년간 전국을 돌며 발품을 팔았다.

그 결과 지하 50m의 물속에서 캐낸다는 자석을 충북 단양에서 발견하고 지금까지 광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정선의 '홍계석', 충남 대천의 '청석'을 찾아내 각각 제작공장을 세웠다.

17세에 벼루작업을 시작한 신씨는 전통적인 벼루 생산지인 충남 보령군 청라면에서 '청석벼루'를 만들던 조부와 선친 밑에서 벼루 만드는 모습을 보며 성장했다.

특히 조부 신철휴는 조각 솜씨가 뛰어나 벼루만이 아니고 비석제작에도 출중해 충청도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벼루장 3대'라는 가업전승과 함께 신씨는 각종 문헌과 도감에 수록된 옛날 작품을 자석 벼루에 복원하고 현대에 맞는 창작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좋은 벼루는 원석의 선택과 장인의 조각술이 관건. 광산에서 채굴한 원석을 절단기로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정과 망치로 원석을 작업하기 편하게 평면으로 만든다.

평평한 면에 도안이나 문양조각을 대고 문양을 그리며, 여러가지 조각칼을 이용해 세밀한 부분을 조각한다. 그리고 벼루의 거친면을 사포로 연마한 후 물속에서 한번 더 사포질을 하면 부드러운 벼루가 탄생한다.

그의 작품은 전통 공구를 이용한 수작업이므로 손바닥 만한 것 하나를 만드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며, 40cm 이상 가는 대형은 두 세달이 걸린다.

그의 작업실 한켠에는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용과 규방의 섬세함과 세련미가 넘치는 매화·포도·참외·가지 모양의 벼루가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서 구입…국가대표 '명품' 인정

"옛 문서를 참조해 재연하기도 하고 좋은 문양을 찾기 위해 도자기에 새겨진 그림이나 부조에 새겨진 불상들을 응용해 그리기도 합니다"

특히 신씨의 작품에는 용문양이 많은데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갈 듯 생동감이 넘치고 구비친 몸통과 비늘도 윤기가 나듯 생생하다.

옛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승부하는 신씨의 최대 걸작품은 국내 최대 크기인 길이 150cm, 너비 65cm에 용·

십장생·구름 등 90가지 그림을 새긴 대형 벼루. 이 벼루는 장정 4명이 들 정도여서 무게만 150kg에 이르는 장인정신의 결정체다. 이 작품은 지난 대전엑스포때 선보여 3천500만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신씨의 작품은 자석이 나오지 않는 일본에 주로 수출했으며, 유명 서예인들이 그의 작품을 구입하러 곧잘 공방을 찾는다고 한다.

신씨의 자석벼루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 재직시 청와대에 납품했을 만큼 국가를 대표하는 명품이다.

신씨는 "매년 2차례에 걸쳐 총 1천800여개를 구입한 정부는 기념품으로 각종 행사에 증정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신씨는 지난 1992년 '제2녹색지대 우수공예품 품평회'에서 대상 수상은 물론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서 80여차례 수상경력을 갖고 있을 만큼 재주를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문양의 지문과 붓도 직접 제작한다.

오로지 벼루제작 외길 인생을 살아온 신씨는 IMF와 중국의 값싼 벼루가 밀려온 1990년대 후반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예전 성남에는 17곳의 벼루공장이 성행했으나 지금은 업종을 바꾸거나 문을 닫았으며 현재는 신씨 혼자서 벼루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씨는 "최근 값싼 중국 자석이 밀려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데 중국산은 잘 갈라지고 터지는 등 품질에 문제가 많다"며 질적인 면에서 승부할 것임을 내비쳤다.

"올 가을 개인전…100여점 선뵐 것"

신씨는 2001년 직장암 수술후 한때 제작활동을 중단했다 올들어 몸이 회복되면서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

지금 그의 가정집겸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안은 물건 꾸러미로 가득하다. 작업장이 성남시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작업환경이 여의치 않아 광주에 부지 및 공장을 알아보고 있으며, 조만간 전시장과 작업장을 겸비한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다.

작업장을 옮기면 서예인이나 일반인들이 벼루를 직접 제작하는 체험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주변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먼지와 소음 걱정없이 작업할 수 있는 곳을 물색중"이라며 "작업장은 물론 일반인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벼루 제작 체험 실습장을 만들고 싶다"고 꿈을 밝혔다.

한때 민속촌에 거주해 10여년 동안 벼루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던 신씨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 알림이로써 제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중국산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는 국산 벼루의 현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다고 고백하는 신씨. "손이 갈라터지며 배운 기술이지만 아직 후회해본 적이 없다"는 그는 "지금 모은 작품이 50여점이 있는데 50여점을 더 만들어 올 가을께 개인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
사진/강종민기자 ppkjm@kgib.co.kr

△신근식씨가 제작한 여러 형태의 벼루들. 용, 십장생 등을 새긴 자석벼루와 가지, 포도 등을 작품화했다.